



윤 대통령 · 한 총리, 주례회동 개최

- 대통령, “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누수 차단에 만전” 당부 -
-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도 실태점검 및 상응조치, 시스템 개편 등 추진 -

-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,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.
 - 윤 대통령은 “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”며, “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한 총리께 당부했다.
 - 이에, 한 총리는 “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,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,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,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언급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박상철 (044-200-2048)
	기획총괄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이규배 (044-200-2049)

